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김원섭 1000 의 기도

1000경기 출장까지 '4' 남았는데
부상·부진에 발걸음은 더디고
"변명은 없다… 팀에 도움되고파"

"프로는 변명이 필요 없다"는 15년 차의 베테랑 김원섭은 매일 날짜를 세고 있다. 간절하게 그가 꼽고 있는 것은 1000일 되는 날이다.

지난 22일 롯데 황재균이 프로야구 통산 120번째 1000경기 출장을 이뤘다. 황재균 다음으로 '1000'을 세고 있는 선수는 KIA 외야수 김원섭이다. 2001년 프로 생활을 시작해서 벌써 15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그에게 1000경기는 쉽지 않은 고지였다. 만성 간염으로 매번 힘겨운 고비를 넘기면서 흘러온 지난 야구 인생. 2012시즌 자신의 최다 기록인 120경기에 나와 0.303의 타율을 만들어냈지만 지난 2년 부상과 부진으로 그라운드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2년의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이를 악물었다. '가장 꾸준하게 열심히 준비한 선수'로 꼽히기도 했다.

어렵게 또 간절하게 2015시즌을 맞은 그는 자신의 프로필에 숫자를 써놓았다. 1000을 향해 올라가던 숫자, 그의 뜨거운 노력과 강한 의지와는 달리 그대로 멈춘 날도 많았다. 부상으로 개막 2주 만에 1군에서 이탈한 그는 7월6일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방망이 탓에 좌완선발이 나오는 날은 벤치를 지키기도 했다.

55경기를 남겨두고 시작한 올 시즌이 벌써 후반기에 돌입했지만 아직도 1000경기에 4경기가 남았다. 노력과 다른 결과, 리빌딩을 향한 팀 상황 등 더딘 걸음이지만 그는 "프로는 변명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김원섭은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부상으로 거의 1년을 쉬었는데 좋은 성적을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일지도 모르겠다"며 "타격 사이클이 있는데 일본 캠프와 시범경기에서 너무 빨리 페이스를 끌어올린 것 같다. 시즌 들어와서 페이스가 뚝 떨어졌다. 2군 다녀와서 감이 좋았는데 그걸 유지를 못 했다. 모두 내가 부족한 탓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마음과는 다른 올 시즌이지만 1000경기는 이루고 싶은 목표다. 그 끝이 눈 앞에 보이지만 그는 냉정하게 자신의 자리를 이야기한다.

김원섭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1000경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부족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찌 됐든 1000경기는 뛰고 싶다. 프로 야구 선수로 1000경기를 채웠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전반기 좋은 활약을 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 1000경기에 도전하고 팀 성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후반기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출신 이미림 손목 부상
마이어 클래식 2연패 불발

광주 출신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이미림(25·NH투자증권)이 손목 부상으로 2연패에 도전했던 마이어 LPGA 클래식과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 여자오픈에 불참한다.

이미림은 23일(이하 한국시각) LPGA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에서 "마이어 LPGA 클래식에서 타이틀을 방어할 수 없게 돼 매우 죄송하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미림은 LPGA 데뷔 첫해인 지난해 이 대회에서 연장 승부 끝에 박인비(27·KB금융그룹)를 꺾고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올해 대회는 24일부터 나흘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블라이드필드 골프장(파71·6414야드)에서 열린다.

이미림은 "마이어가 마련한 훌륭한 대회에서 경기하기를 바랐지만, 왼쪽 손목 부상 때문에 이번 주 대회는 물론 다음 주 열리는 브리티시 여자오픈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이어와 그랜드 래피즈 측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내년에는 이 멋진 대회에 참가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년 리우올림픽 골프 金 남녀 1개씩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에서 112년만에 정식 종목으로 부활하는 골프에 걸린 금메달은 남녀 개인전 하나씩이다. 여자 골프가 세계 최강인 한국은 여자 개인전 금메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다음 대회인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는 골프 단체전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가 열린 영국 세인트앤드루스에서 회동한 골프 경기 단체 인사들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들 사이에 단체전 신설 논의가 심도 깊게 오갔다. IOC는 "좀 더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현지 분위기는 단체전 신설 가능성이 부쩍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발표하면서 도쿄 올림픽 세부 종목을 320개 이하로 묶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디오픈을 비롯한 메이저급 대회 흥행을 유심히 살펴온 IOC 내부에서는 단체전 신설에 긍정적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IGF가 구상하는 올림픽 단체전은 남녀 혼성 단체전이다.

각국 대표팀은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각 1명을 팀으로 묶어 1라운드 포볼, 2라운드 포섬, 그리고 3라운드에서는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로 경기를 치르는 형식이다.

포볼은 같은 팀 선수가 각자 플레이하면서 홀마다 더 좋은 스코어를 낸 선수 성적을 팀 성적으로 삼는 것이며 포섬은 두 선수가 1개의 볼을 번갈아 치는 방식이다. 3라운드는 남녀 선수가 각자 18홀을 돌아 두 선수 스코어를 합산한다. 경기는 3라운드를 치르지만 72홀 성적으로 순위를 가린다. /연합뉴스

"여름엔 비치발리볼" 23일 울산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 열린 '2015 울산진하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 조별리그에서 체코의 밴둘라 하라고바가 힘겹게 토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 오른' 강·추

강정호, 4경기 연속 멀티히트… 타율 0.286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4경기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쳐내며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갔다.

강정호는 23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방문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부터 9경기 연속 안타를 친 강정호는 시즌 타율을 0.282에서 0.286(245타수 70안타)으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강정호는 지난 20일 밀워키 브루어스전부터 이어진 멀티 히트 행진을 4경기로 늘렸으나 팀의 1-5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강정호는 2회초 무사 1루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상대 우완 선발 에딘손 볼케스의 초구 싱커(약 153㎞)를 받아쳐 깨끗한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그러나 피츠버그는 후속 타자인 트래비스 이시카와가 삼진, 크리스 스튜어트가 병살타를 치는 바람에 무사 1, 2루 기회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4회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강정호는 무사 1루에서 볼케스의 3구째 체인지업을 공략해 좌전 안타를 쳐냈다. 그러나 이시카와가 삼진 당한 것을 비롯해 후속 타자들이 범타로 물러난 탓에 피츠버그는 또 한 번 절호의 무사 1, 2루 득점 기회를 놓쳤다. /연합뉴스

추신수, 좌완 상대 안타… 이틀 연속 안타·타점

역대 미국프로야구(MLB)에서 뛴 아시아 출신 타자 중 처음으로 사이클링 히트를 작성한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이틀 연속 안타와 타점을 수확했다.

추신수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의 쿠어스 필드에서 벌어진 콜로라로 로키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치고 타점 1개를 올렸다.

시즌 타율은 0.234(320타수 75안타)로 약간 하락했고, 시즌 타점은 43개로 불었다.

텍사스는 10-8로 이겼다.

왼손 투수를 상대로 낮은 타율 탓에 전반기 막판과 후반 첫 3연전까지 '플래툰 시스템'의 제물이 된 추신수는 전날 사이클링 히트의 업적을 발판 삼아 이날은 좌투수임에도 선발 출장 기회를 잡았다.

'타자들의 천국'인 쿠어스 필드에서 개인 통산 첫 번째이자 아시아 타자 통산 첫 번째로 사이클링 히트를 친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날카로운 적시타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3-0으로 앞서간 1회 2사 2루에서 로키스 왼손 선발 투수 호르헤 데 라 로사의 몸쪽에 떨어지는 컷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우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총알 같은 타구로 2루 주자를 홈에 불러들였다. 상대 내야진이 우측을 막는 수비 시프트를 펼쳤지만 타구의 코스가 워낙 좋고 속도도 빨라 손을 쓸 수 없었다.

기분 좋게 출발했으나 나머지 타석에서는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다. /연합뉴스